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

2016년 10월 25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topics.lds.org*의 복음 주제에서 발췌: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이란 성별이 같은 사람에게 감정적, 육체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끌리는 것을 말합니다.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성별에만 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양쪽 성별에 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과 동성애적 행위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합니다.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을 지닌 사람 혹은 게이나 레즈비언, 양성애자인 사람도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킬 수 있으며, 온전하고 합당하게 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이나 레즈비언 혹은 양성애자이거나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을 가진 것은 죄가 아니며, 그 때문에 그들이 교회 모임 참석, 교회 부름 수행, 또는 성전 방문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순결은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성적 관계는 결혼했으며 상대방에게 온전하게 충실할 것을 약속한 남녀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 또는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율법 중 하나를 어기는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개인의 성적 지향과는 관계없이 순결의 법을 어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거부하고 그분과 같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유혹을 받을 때 우리를 도울 방법을 아시는 구주께 도움을 구합니다.(고린도전서 10:13; 교리와 성약 62:1 참조) 우리가 성적인 유혹에 굴복하여 순결의 법을 어긴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아 교회 활동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왜 동성에게 끌리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이는 몇몇 이들에게는 복잡한 현실이며 인간이 경험하는 부분 중 한 부분입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을 완벽히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평안과 기쁨, 희망,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앨마서 7:11~12 참조) 우리가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마주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서로에게서 친절과 연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로마서 8:16~17) 우리가 서로 돕는 환경을 조성할 때, 서로를 위한 관용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하나의 관점과 단결된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